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 막 1:15

글 | 방경미 전도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는 복음 선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포하는 중요성과 달리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인식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그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내 재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사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들의



수고가 너무나 눈물겨웠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카페 테라스에서의 물놀이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도 많고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동생들을 위해 안전 지킴이로 수고해 주었고, 보살피고 함께 놀아주는 그 섬김의 모습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분의 아버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끝까지 함께하시며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두 분 중 한 분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었는데, 성경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사랑과 수고를 보시고 감동받았다고 하시며 결국 교회에 등록하셨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 막 1:15

글 | 임병학 부장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살아내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좇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초등부에서 마지막 여름성경학교를 보내게 되는 6학년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하루 먼저 출발해서 6학년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아이들을 돌볼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일 집사님 부부를 보내주셨고, 덕분에 6학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성경학교는 김태중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교사들도



함께 은혜로 채워지는 교사기도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에도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주신 김선호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메뉴를 고민하고, 재료를 다듬으며,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한여름인데도 뜨거운 불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섬겨 주신 주방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 섬겨주신 김태중 장로님과 아이들에게 '곤충 대탐험'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전성철 집사님,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날아와 함께 섬겨주신 홍일 집사님 부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신 강덕신 집사님, 김예진 집사님, 손석준, 이민호 청년 선생님들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알다 길을 걷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 14:6

글 | 강덕신 부장

이번 수련회는 준비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염려했던 순서는 '요한복음 통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요한복음 전체를 함께 읽어야 했기에, 학생들이 과연 끝까지 잘 따라와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몸을 비비 꼬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 휴식 시간을 보낸 뒤,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전반부와는 다른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생기를 되찾았고, 마지막 장을 향해 갈수록 말씀을 읽는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붙었습니다. 두 시간 반에 걸쳐 요한복음을 모두 읽었을 때 느꼈던 벅찬 감사는 결코 교사들만의 것이 아니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날에는 공성호 강도사님의 열정적인 복음 선포가 있었고, 둘째 날에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을 감당하시는 최새롬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수련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나이트 토크-우리도 너였어'



시간에는 진흥인 집사님의 파워풀한 춤과 인터뷰, 학생의 어머니로서 들려주신 김경민 집사님의 가슴 울리는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한발 앞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위로의 노래와 진솔한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따라 걷는 길이 결코 험하지 않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날의 큰 울림과 여운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자신의 떡과 물고기를 기꺼이 내어 주신 수많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섬겨 주신 주방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청년 지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어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장을 사랑으로 감싸 주고, 각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토록 귀한 교사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청년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 22:13-14

글 | 전성철 부장

우리가 정선에서 땀 흘리며 봉사한 것도 물론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며 한마음으로 함께했던 우리 공동체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의 웃음과 땀, 서로를 챙기는 모습,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를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새은청년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이 있었기에 우리청년부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부의 매 끼니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위해 100인분의 도시락을 손수 만들고 포장해주시고 주일 점심에는 정선동강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삼계탕까지 준비해주신 주방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 막 1:15

글 | 조승범 목사

이번 2026학년도 영유아부 성경학교에서는 마가복음 1장 15 절을 토대로 '거듭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에게는 '거듭남'이 다소 수준이 있는 내용이었지만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은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까만 마음'임을 고백하고, 깨끗한 '하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고, 이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사리같은 두 손을 모으고, 작은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영유아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단단한 믿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다해 축복하였습니다.

특pecially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마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예사랑 테라스에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여 '새순 미니 워터파크'를 개장하였는데 아이들이 워낙 어리다보니 안전이 신경쓰였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한 물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시기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영유아부...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소망하며, 거룩히 살아가는 새순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영유아부 선생님들과 어린 자녀의 믿음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짐, 그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 로마서 12:5 새번역

글 | 조승범 목사

더이음 공동체는 조금 늦은 8월 말에 여름캠프를 가졌습니다. 이번 캠프는 무엇보다 성도의 교제에 초점을 두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더욱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물놀이를 비롯해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특강, 레크리에이션, 선물교환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프의 특별한 은혜를 꼽는다면 새로오신 신혼부부 여러 가정의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더이음 가족들도 평소에 새롭게 공동체에 접붙혀진 분들을 만나서 알아가고 싶었지만, 서로 충분히 교제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 함께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대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pecially 이번 캠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여름 캠프 장소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부장 장로님과 리더분들의 발빠른 대처로 제삼수양관(원주)에서 킹덤키즈풀빌라(가평)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더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더이음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니 우리를 더 풍성한 교제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느낀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더이음이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름캠프를 통해 더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